

영국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회사인 BTG, 응용프로그램 다운로드와 관련된 특허에 대한 권리주장

런던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회사가 자동 응용프로그램의 제공 및 업데이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TG(British Technology Group)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많은 소프트웨어 판매자들과 활발히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BTG의 대변인 Andy Burrows는 문제가 된 특허는 미국특허청이 부여한 여섯 개의 특허라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특허의 특허권자는 BTG인데 Teleshuttle을 통해 사업화를 하고 있으며, 이들 특허가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업데이트 및 제품패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동 또는 예약으로 업데이트 되는 다운로드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

라고 말하고 있다.

BTG는 문제가 된 특허 중 첫 번째 특허를 받기 2년 전인 1998년에 Teleshuttle과 제휴를 시작하였다. 대변인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판매자들과 몇 달 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다.

특허소송은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변인은 “특허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고, 경솔한 특허침해주장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50년간의 영업력을 자랑하고 있고 중요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경솔하지 않다” 라고 말한다.

BTG는 2004년 3월, 9천6백7십만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였고, 이들 거의 대부분을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통하여 얻었다.

Microsoft사, 브라우저 특허 침해에 대한 5억 2천만 달러 손해배상판결에 항소함

MS사는 자사의 브라우저가 특정 웹브라우저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미국 배심원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배심원은 지난해 8월, MS사의 익스플로어 사용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5억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캘리포니아 대학과 Eolas Technologies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목요일에 제기된 항소심은, Eolas의 특허는 이미 공지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MS사의 주장을 항소법원이 받아들일 것인지, 즉 선행기술의 범위에 대한 한계에 관련된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1999년으로,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어 프로그램이 웹 브라우저가 쌍방향 응용프로그램에 접속가능하게

에르메스社가 일본백화점 등에 젤리 가방 「취급 주의」 요청

프랑스의 유명 브랜드회사인 에르메스가 일본 백화점 등에 대해 젤리 가방의 판매시에 자사 제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의하라고 요청함.

지은 여성 사이에서 봄부터 대유행하고 있는 「젤리 가방」중에 상표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여, 프랑스 유명 브랜드의 일본 법인 에르메스 재팬社(토쿄)는 일본 국내의 주요 백화점에 대해 취급에 주의하도록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젤리 가방」이라고 불리는 핸드백은 합성 수지제품으로, 부드러운 감촉과 선명한 색상이 특징이다. 미국에서 유명 모델이나 여배우가 가지고 있어 화제가 되어, 일본에서도 이번 봄부터 유행하고 있다.

여러 업자가 취급하고 있고 「젤리 켈리」 등 명칭은 여러 가지이다. 가게나 인터넷에서, 수천엔부터 2만엔 정도로 팔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방의 상당수는,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가방 「켈리」나 「버킨」을 연상하게 하는 상품명으로 팔리며, 플랩(뚜껑)의 부분이 파도모

양으로 되어 있는 것, 벨트를 중복되게 하여 자물쇠를 채우는 형태 등 디자인도 아주 비슷하다.

이에 대해, 헤르메스 재팬社에서는, 상표 등록한 「켈리」 「버킨」의 이름을 동의없이 사용한 전 시, 판매는 상표법 위반이 되며, 디자인이 동일 또는 비슷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에르메스 재팬社에서는, 벌써 판매업자 8개 회사에 대해 경고서를 보냈으며, 여름 바겐 시즌을 겨냥하여 거래가 있는 백화점 38개 점포에 대해, 취급에 주의하도록 요청서를 보냈다.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강한 태도로 임할 것이다」고 한다.

작년 8월에는 미국의 에르메스법인도, 젤리 가방 판매업자에 대해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할 것이라고 한다.

하는 방법의 발명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토대로 MS사는 켈리 포니아 대학과 Eolas Technologies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지난해 8월에 내려진 판결은 올해 1월에도 지지되었고 시카고 지방법원은 MS사에 침해금지를 명령하고 침해소프트웨어의 배포를 금지시켰다. 이러한 금지명령은 MS사가 제기한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한 언론기사(CNET News.com)에 따르면, MS사는 법원이 침해판결 파기하거나 무효판결임을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MS사는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책정은

Windows를 미국 내에서만 판매한 것에 대해서 부과하여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사법절차와 독립된 절차인 행정절차에서 미국특허청은 산업계로부터의 입력하에서, 11월에 Eolas 특허의 재심사를 받아들이고 3월에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Eolar가 몇 주 전 판정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으나 미국특허청이 최종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